월 취업자수 6개월 연속 30만명 미달

〈정부 목표치〉

지난달 26만 2천명 …고용부진 지속

비경제활동인구 1,546만명 사상 최대

1월에 이어 2월 취업자 수도 정부 목표인 30만명에 크게 미달하면서 지난해 이후 부진했던 고용사정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267만4천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26만2천명(1.2%)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해 8월 31만8천명에서 9월 28만2천명으로 내려 앉았고, 10월 27만8천명, 11월 26만7천명, 12월 29만명에 이어 올해 1월 25만8천명, 2월 26만2천명 등 6개월 연속 30만명대를 하회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연간 30만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만9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6만9천명), 건설업(4만6천명) 등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4만6천명), 제조업(-4만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6만3천명) 등은 감소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10대(-8천명), 20대(-6만1천명), 30대(-10만명) 등은 줄었고, 40대(6만7천명), 50대(21만3천명), 60대 이상(15만명) 등은 늘었다.

통계청은 2월 설 명절의 영향으로 택배, 선물포장 등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50, 60대 연령층의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월 고용률은 58.1%로 지난해 2월과 같았고, 계절조정 고용률은 59.9%로 전달(60.0%)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은 62.6%로 나타났다. 2월 실업자는 86만1천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9만2천명(-9.6%) 감소했고,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353만6천명으로 지난해 2월 보다 17만명(0.7%)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0.4%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46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23만4천명(1.5%) 증가하면서 지난 1999년 6월 구직자 기준을 변경한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구직단념자(14만1천명)도 2005년 8월 14만8천명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구직자 10명중 6~7명 비정규직이라도 취업 희망

구직자 10명 중 6~7명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 알바팅(www.albating.com)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1천182명을 상대로 '원하던 직장·업무지만 비정규직이라면 취업하겠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4%가 '일단 취직한 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원하던 일이면 고용형태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17.9%, '비정규직 보호법을 믿고 일단 취업하겠다'(3.6%)로 전체 응답자의 67.9%가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정규직이면 포기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32.1%였다.

알바팅 관계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취업하고 보겠다'는 절박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감사원 지적 의문 많다"

론스타 회장, 외환銀관련 감사 정면 반박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관련 감사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관료와 외환은행 전 행장, 매각 자문사 등이 외환은행의 재무적 문제를 부풀리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데 공모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의문을 표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BIS 비율을 전망하는 작업에는 은행의 내부 상태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금리와 인플레이션, 국제무역 현황, 정부의 재정정책과 지정학적 위험 등 외적 경제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은행의 경영 및 자산 현황과 거시경제 환경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미래 돌출변수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IS 비율을 산정할 때는 불확실한 미래변수에 대한 많은 가정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은행의 BIS 비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는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측은 설령 감사원의 지적처럼 BIS 비율이 조작됐고, 당시 모든 금융전문가들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경기침체에 '화이트 데이' 외면

매서운 경기 한파에 청춘남녀들이 사탕을 주고받는 '화이트 데이' 경기도 숨을 죽였다. 화이트데이인 14일 젊은이들이 전남대 후문 입구에 늘어선 사탕 선물세트를 외면하듯 지나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030 기혼직장인 절반 이상 맞벌이

"육아 힘들지만 함께 벌어야"

20~30대 기혼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직장인포털 비즈몬(www.bizmon.com)에 따르면 최근 20~30대 기혼 직장인 434명을 상대로 '맞벌이 현황 및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맞벌이 선호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2.3%가 '맞벌이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 맞벌이를 하는 이유로는 '가정 경제력 향상을 위해'라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고 '자아실현'(21.0%), '사회적인 추세라서'(3.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맞벌이중인 응답자는 맞벌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육아'(41.6%), '자녀교육'(15.3%), '기혼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기업 복지제도'(13.7%),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11.8%), '기혼여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9.2%), '가사일은 여성전담이라는 차별적 사고'(7.3%) 등이 지적됐다.

맞벌이를 통한 월평균 가정수입은 300만~400만원(26.3%), 400만~500만원(22.9%), 200만~300만원(21.0%), 500만~600만원(11.5%), 200만원 미만(10.3%), 600만~700만원(4.6%)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은행장 되려면 자녀 관리부터

국적·병역문제 검증 요구

국책은행 등 인선 변수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나 변수로 작용하던 후보 자녀 관련 문제가 은행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은행장을 꿈꾼다면 자녀 관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로 사망한 고 윤장호 병장이 미국 유학생활 중 자원 입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행장 후보와 그 자녀의 병역의무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결정된 모 국책은행장 인사에서는 후보 자녀의 국적과 병역문제가 막판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우수한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유력한 행장 후보로 거론되던 A씨가 막판 탈락의 고배를 마신 데는 영주권을 가진 자녀의 병역 면제 등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 잣대가 더욱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4개 주요 금융기관장 인선 가운데 마지막 남은 우리은행장 인사에서도 자녀의 국적과 병역문제 등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후보의 아들이 해외유학 후 군 복무를 면제받은 채 국내 금융회사에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세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정부지분이 78%에 달하고 경제관료 출신인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공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국책은행장 인선 때와 같은 높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 미국발 모기지 쇼크… 국내 증시 파장

"단기 안정" VS "길게 갈것"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가 국내 증시에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물가불안 고조로 중국이 조만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돼 '차이나 쇼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는 14일 지난해 4·4분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연체율이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부실 우려를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 우려가 금융시스템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로 글로벌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부정적인 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 영향력은 단기로 그칠 공산이 크며, 이번 사태가 미국 금리인하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재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동부증권 김성노 애널리스트는 "미국 금융시스템 불안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불안 요인임에 틀림 없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 오현석 애널리스트는 "모기지 부실 변수가 미국 경제의 급속한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발 악재를 빌미로 국내 증시의 조정이 2.4분기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피지수는 1,300선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우려 외에도 중국 등 이머징마켓의 금리인상 및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의 불안 요인과 그간 사상최고치 경신 등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 등을 조정의 요인으로 꼽았다.

조익재 CJ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우려의 핵심은 유동성 경색 우려"라며 "이는 조정의 한 요인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중국 금리인상 및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우려, 주식시장의 가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에 마무리될 이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주식거래 비용 낮춘다

호가단위 세분화 추진

주식거래의 호가단위를 세분화해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008년 말 증권선물시장의 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점에 맞춰 주식거래의 매매호가 단위를 현행보다 대폭 세분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주식의 호가단위는 5천원 미만이 5원, 5천~1만원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등으로 구분돼 있는 것을 더욱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연구원은 이와 관련, 작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식 호가단위를 5천원 미만은 1원, 5천~1만원은 5원, 1만~5만원은 10원, 1천원 미만은 1원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주식매매의 호가단위가 세분화하면 거래시 호가단위가 세분화된 만큼 주식을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 수 있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증권거래 조사전문기관인 엘킨스맥셰리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은 호가단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수수료와 거래세, 시장충격비용 등을 합한 시장비용이 2005년6월 기준으로 58.49bp(1bp =0.01%)를 기록, 뉴욕의 23.26bp, 나스닥의 30.32bp의 2배 수준이며 일본 도쿄거래소의 19.55bp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이태원동 저택

국내 최고가 91억 4천만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사진〉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이 91억4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이 회장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주택은 작년에 공시가격이 85억2천만원이었으나 올해는 7.3% 올라 91억4천만원이 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서 산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 주택은 실제로는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두번째로 비싼 주택은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소유로 돼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단독주택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20.4% 올라 86억3천만원이 됐다. 이 주택도 실제 가격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중구 장충동1가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8.3% 올라 76억9천만원이 됐으며 역시 이건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은 7.2% 상승한 74억1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서영배 태평양개발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5.9% 올라 71억4천만원이 됐다. /연합뉴스

"중고휴대전화 무작정 폐기 말라"

부품에 납·비소 등 유해물질 포함

재활용·재사용 법률안 서둘러야

휴대전화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과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고휴대폰재활용협회 송영준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서울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중고 휴대전화가 버려지면서 환경적, 산업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중고 휴대전화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휴대전화 본체에는 납과 비소, 리튬코발옥사이트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소각시 유해독성물질이 발생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폐휴대전화 수거량은 2004년 601만대, 2005년 328만대, 2006년 상반기 111만대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단순히 고철처럼 분리수거할 경우 대당 실질가치는 314원에 불과하지만 상품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평균 20달러에 달해 분리수거에 비해 60배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송 회장은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고 휴대전화를 무작정 폐기함으로써 폐기업체가 부담하는 연간 수십억원 상당의 적자를 제조사가 보전해주고 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경우 5만원도 되지 않는 중고 휴대전화의 케이스를 교체하려면 10만원 이상 20만원까지 받는 실정"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경우"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韓銀 고액권 인물도안 선정 착수

한국은행이 고액권의 인물도안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고액권 발행작업에 착수한다.

14일 한은은 고액권 발행작업의 첫 단계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액권 인물 선호도 조사작업을 곧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는 인물도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비공개로 할 예정이다.

한은의 종전 설문조사 결과 정치인으로는 세종대왕이 선호도 1위를 차지했으며 학자로는 다산 정약용, 여성은 신사임당, 과학기술인은 장영실, 독립운동가는 백범 김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한은은 당시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화폐제도개선 방안의 실행이 무산되고 기존 지폐의 위·변조 방지기능만 보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기존 지폐의 인물(세종대왕, 율곡 이이, 퇴계 이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난해 초부터 새 지폐를 발행해왔다.

따라서 내년 이후 발행될 5만원, 10만원 고액권 인물도안으로는 정치인과 학자를 뺀 나머지 3개부문, 즉 여성과 과학기술인, 독립운동가 가운데서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